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후 2:00~7:00 (토·공휴일 5시까지, 주일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7번지 SK엠시티 드라마파크 2층 212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보 광고 참고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010)2956-9191 야간: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이사장 : 정기환 ▮사장 : 소진우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51호]

한기총 제18대 대표회장에 홍재철 목사 선출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정관 개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14일(화)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 본당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8대 대표회장으로 홍재철 목사(예장합동)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비대위측에서 제기한 개최금지가처분이 기각되면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한 235명의 총대들 중 231명(반대 1명, 기권 3명)의 지지를 받은 단독후보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됐다.

홍재철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 인사에서"부족한 종을 제18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또한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총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이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보수 신앙과 진리 안에 뿌리박고 성장하는 한기총",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한기총"을 제시한 뒤,"이제 모든 불신과 원망과 반목은 다 버리고 우리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2012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한기총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은 이임 인사에서"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꿋꿋이 기도하며 자리를 지켰다"며"18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홍재철 목사님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용기를 갖춘 분이기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저도 물러나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기총 직전대표회장(좌) 신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우)

축사를 전한 이만신 명예회장은"홍재철 목사는 한기총을 크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표회장이라 생각한다"며"넓은 아량을 가지고 다 포용해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총회 1부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조갑문 목사의 사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의 기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인사말, 부회장 진택중 목사의 성경봉독, 왕성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 공동회장 이기창 목사의 말씀,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회무에 들어가 2011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2011년도 감사보고, 2011년도 결산보고를 유인물대로 받아 가결했다.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제와 임원회 조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과, 이를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도 통과시켜, 홍재철 신임 대표회장 임기부터 적용된다.

예장 합동보수보수(총회장 임중열 목사), 예장 합보(총회장 김인식 목사), 예장 개혁정통(총회장 김인식 목사), (사)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대표 홍재철 목사) 등 3개 교단과 1개 단체의 회원 가입도 승인했다.

임원 및 상임위원장 인준 및 특별위원장 임명은 신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으며, 2012년도 사업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및 제23회 총회선언문 발표는 새 대표회장이 임원구성 후 소집하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3부 폐회예배는 신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사회,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기도, 홍재철 목사의 성경봉독, 총무 김운태 목사의 광고,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월 15일 한기총 집무실로 첫 출근하여 정상적인 엄무를 진행했다. 이어 20일 아침에 홍 대표회장 인도로 직원예배가 있은 후 서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 언더우드 묘역과 아펜젤러선교사 묘역에서 헌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서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대사회적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기총은 23일(목) 오전 11시 플라자 호텔 5층 비즈니스 클럽에서 주요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교계 지도자들과 정계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대표회장 취임축하 감사예배를 드렸다.

▮ 사설

北 도발적 통고장 선거개입 신호

대응타격 위협, 민간인 대피 통고

"선거개입"기도 철저 차단해야

19일 북괴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위임에 따라서〉라며, 20일 우리 군의 서해 5도서 수역에서 실시하는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도발적인 '공개통고장'을 발표 했다.

공개통고장은 南의 훈련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북이 저지른 천안함과 연평도포격도발로 인해서) 가뜩이나 긴장한 수역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려는 계획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통고장은 서해 北측 영해수역은 북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며, 북측 해상경계선을 넘어 군사도발이 시작되고, 단한개의 수주(물기둥)가 감시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 될 것이므로 서해 5도서 주변 민간인은 20일 9시 이전에 안전지대로 대피 할 것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불바다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일상적인 아군 사격훈련에 이례적으로 민간인 대피를 요구하는 통고장을 발표 한 것은 불안 한 김정은 체제 정착에 몸부림치고 있는 北이 ▲아군 훈련으로 인한 압박감과 경계심을 드러낸 한편 ▲서해 5도서 일대가 북의 영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면서 ▲서해에서 긴장의 원인을 아군에게 전가하는 함으로서 ▲천안함과 연평도포격도발을 정당화하고 ▲ 南주민의 사전대피를 통고함으로서 〈선거철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작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폭침사태를 종북반역세력들이 "전쟁이냐 평화냐?"는 전쟁위협 압박감과 공포심리 조장으로 투표심리를 오도하여 6.2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던 달콤한 교훈을 우리의 올해 총선 대선에서도 재현해 보겠다는 음흉한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위임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북괴군'전선서부지구사령부'의 단독 의지가 아닌 북괴군총사령관 김정은의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군은 이 따위 저급한 장난질로 김정은이 얻을 것 보다는 잃게 될 것이 많다는 엄중한 교훈을 갖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따위 농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응징보복 태세와 결의〉를 확고히 하고 그 동안 아군이 천명해온 〈도발원점 타격〉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님을 보여줄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임은 물론, 차제에 도발원점인 포진지는 물론 공기부양정발진기지도 과감히 수술해 버려야 할 것이다.

북의 도발적 경고장에 대하여 국민에게는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격퇴한다는 불퇴전의 자세를 각인시켜주고, 北에게는 사소한 도발도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엄중한 교훈을 줌과 동시에 南 선거에 개입 영향을 주려는 섣부른 시도를 철저히 차단 봉쇄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그동안 북의 도발을 선거에 악용해 온 민통 통진을 비롯한 촛불폭도들의 이적 반역적 행태와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음은 물론, 우리정부와 국민에게는 적의 위협과 술수에 놀아나기보다 사소한 도발도 불용한다는 투철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장웨신, 고신연합, 고려개혁 3개 교단 통합한다

3개 교단 통합 기정사실로 3월 중 통합감사예배 드릴 예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고신연합, 고려개혁 등 3개 교단이 통합을 전재로 2월 3일 오후 5시 부천전원중앙교회(정기환 목사)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웨신총회는 총회장 성흥경 목사, 교세전권위원회 위원장 임칠환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 서기 장창윤 목사, 정기환 목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통합추진위원장 안병삼 목사 등이 자리를 같이하고 조건 없이 3개 교단통합을 전격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웨신총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 교세확장전권위원장 임칠환 목사, 고신연합총회 통합추진위원장 안병삼 목사, 고려개혁총회 통합위원장 홍혁기 목사 등은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합의했으며, 교단 명칭과 헌법도 수정하지 않고 웨신총회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개 교단 통합총회는 3월 중 통합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향후 교계의 표준이 되는 총회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술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벧엘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5~1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엄기호 총재)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젼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건,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능래교회(김상용 목사)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연경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창수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영성원(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1-13 베데스다교회(허영해목사)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1-13 성산교회(신승종목사)
18-20 새빛교회(윤형진목사)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3-6 온누리연합수련회(엄기호총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샘물교회(이옥석목사)

2012년 10월
7-9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목사)
15-16 정기노회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9-9/11 성지순례

2012년 11월
---9 성지순례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3-5 임마누엘교회(정태열목사)
10-12 예원교회(한규식목사)
17-21 필리핀선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방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총무실을 방문해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에 대해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종교계의"학교폭력대책" 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완성된 대책이 아닌만큼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영주 총무는"학교폭력의 문제가 폭력의 문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단순히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교회협은 오래 전부터 평화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앞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폭력 가해자 교육, 인성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함께 배석했던 이훈삼 정의평화국장은 연세대 정관 개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교과부 장관 면담을 3차례나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연세대 문제는 단지 정관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세대를 설립한 설립자의 몫을 빼앗아 가는 것이며, 권력을 가진 개인이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한국교회는 연세대 정관 개정에 대한 행정 처리를 교과부에서 단 하루 만에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무도"공공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소중한 자산들이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과부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교회, 새로 시작해야 한다

천현욱 목사
코닷 대표

지금 한국 정당들이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두고 설왕설래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있다. 신당, 합당, 재창당 등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과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당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되는 것일까?

정당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정당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일 뿐이다. 다른 누구를 비난하면 곤란하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그래도 새로운 시도는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계속할 것이다. 여전히 별수없는 인생이지만 머무르지 않고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 법이다. 교회는 어째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은 재창당 운운이라도 하는데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한다지만 겨우 한 기총해체하라는 비난 정도뿐이다. 그런데 그 비난은 더 거센 반발을 부르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행정보류라는 소리로 잠재우려하고 있다. 행정보류는 일반적으로 교권을 거부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법인데 되레 연합기구가 교단을 행정 보류시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교회야말로 재창당이 필요하다. 모든 간판을 다 내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고신교단에 고신교회 있는가? 개혁신앙 따라 사는 고신목사가 있는가? 합동에는 분열 외에 뭐가 있는가? 부산의 통합교회 지도자들은 연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모양새다. 순복음도 순전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성결에도 성결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감리교는 아예 감독이 없다!

한국교회 각 교단이 그 옛날 그 간판을 달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그 이름이 무슨 차이를 말해주지도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겉치레일 뿐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허황한 소리를 한다면 그건 교회를 두 번 해하는 일이다.

한국교단 교파이름 내려놓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 정도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아무 의미 없는 분열과 분리를 끝내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

2012년 장로교회 100주년에 아예 장로교부터 간판내기 운동을 펼쳐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갑자기 주님의 반응이 무척 궁금해진다.

지지스타임즈 |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피종진 목사 이사장:정기환 목사 사장:소진우 목사 발행인:정기남 목사

전국 20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난장판 MBC, 사장선임제도 바꾸든지 민영화(民營化)하든지 하라, 아니면 문 닫으라!

우리사회에 종친초(從北親北촛불군중)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의 중심에 MBC가 있다.

MBC언론노조는 지난 1월 30일 또 파업을 시작했다. 현재 4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은, MBC가 MB때문에 편파방송을 했다면서 명동거리에서 상복(喪服)을 입고, MBC의 죽음을 알리는 입관식(入官式), 노제(路祭), 운구(運柩)행렬 등을 벌였다. 파업 중에 어떤 부장급 여기자는 수영복 차림으로 젖가슴에 "가슴이 쪼그라들도록 나와라 정봉주"라고 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래저래 난장판이다.

최근의 혼란을 보면서 여권의 몇 의원들은 MBC언론노조의 파업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MB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현제도 아래서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낙하산 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사장선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거나 대선후보의 선거 대책기구에서 활동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혹은 "정부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임원 퇴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KBS, MBC, YTN 등 공영성을 띤 방송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MB가 집권했던 지난 4년은, 애국진영에게도 몹시 실망스러웠다. MB정권의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몹시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MBC노조의 파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저들이 입으로는 공정방송을 말하지만, 저들이 파업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총선에서 좌경세력을 돕기 위해서이다. 저들은 공공연히 "이대로는 총선과 대선을 치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MBC는 지금도 노영방송(勞營放送)이라는 것이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MBC의 실질적 경영자는 MBC언론노조였다. 그런데 MB정권 하에서도 좌편향 방송은 달라진 게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거짓 선동과, 천안함 폭침은 북한 김정일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궤변 등 오늘도 저들의 대한민국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MBC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가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MBC 사장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선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KBS이사회와 MBC방송문화진흥회 등 사장을 선출하는 기구의 구성원들도 정치권과 무관한 다른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BC를 구하기 위한 방안 중 다른 하나는 MBC를 민영화(民營化)하자는 것이다. MBC는 주인이 없기에 정권과 노조가 차례로 흔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민영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영화 주장의 배경에는 어떤 제도 혹은 법도 MBC언론노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회의가 깔려있다. 헌법 위에 떼법 있고, 떼법 위에 언론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MBC를 바로 잡는 데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우리는 민영화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MBC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괴롭혀왔다.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MBC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MBC 사장 선임 제도를 개정하든지 민영화를 하든지 하라. 아니면 차라리 문을 닫게 하라.

개그맨 서세원 목사 되어 "목사는 아무나 하나?"

대부분 악플로 반응, "범죄자들이 택하는 길은 목회자"

서세원 목사

개그맨 서세원(56)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BS E! 뉴스는 2일 서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현재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개척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 씨가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SBS E! 뉴스에 따르면, 서 씨는 "미국의 한 신학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수료한 뒤 관련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정규 심사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또 서 씨의 교회 관계자가 "목사 안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고, "외부인들의 관심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다"고 SBS E! 뉴스는 전했다.

목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서 씨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부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 씨는 범죄 경력이 있는데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과 맞물려 최근 이근 안 씨의 목사 안수 건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교회의 목사 안수 남발에 대한 누리꾼들의 근심이 증폭된 것도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소정의 교육기관만 이수하면 되는 거군"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목사는 아무나 되나", "목사도 최소한 자격 심사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서 씨는 '서세원쇼'로 활약 중이던 2001년,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서세원프로덕션을 만들며 승승장구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곧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과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 후에도 주가 조작, 故장자연 사건 연루 등 서 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First – Class ACE 신학연구원, 2012 전기 신 · 편입 연구원생 모집

원장 박희돈
H.P 010-3137-2642

1.모집분야

●신 학 – 사회봉사신학
●복지학 – 기독교사회복지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코칭
●건강코칭– 기능학적 물리치료 요법 코칭

2. 모집목표

최근 복지서비스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서비스 이론과 실무 및 경험, 체계화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세분화된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어떠한 학문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명자가 많아 사역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를 미리 경험하고 최선의 해답을 도출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청교도적 사명자 양성
· 교회와 시민 사회와의 건전한 소통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모색
· 교회의 신뢰성 회복과 비전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과 사업수행 지원
· 이론과 함께 다양한 기독교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연구
· 실무 능력에 맞는 창의적 맞춤형 교육과정
·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관련 과목 이수
· 현장 체험학습으로 인문학적 견문을 넓히도록 책임지도
· 4차원 균형 원리를 이용한 건강법 및 예방건강법 창안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연구 등의 수준 높은 교육 과정
· 모든 과정 100% 장학혜택으로 우수 인재 확보

3.모집안내

●모집기간 : 2012년 3월 10일까지
●자격 신입생 – 목회 및 복지시설 현장 종사자 및 신학에 관심 있는 자
편입생 – 타 신학교 및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선발방법 : 지원서 접수 + 면접
●접수방법 : ACE 연구원 카페 온라인 및 우편. 방문.
팩스(02)2678-1164
cafe.daum.net/ace0708(참조)
●상담전화 : 신학010-3902-9004. 복지010-4128-0181
리더십010-2008-7227 건강코칭010-3706-0034

※ 국적 및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특전 : 1.모든 과정 100% 장학혜택
2.목사안수 가능(소정의 과정 이수자)
3.학업 중 식사제공

First – Class ACE 신학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94-2 (영등포 로타리 신길역 3번 출구)
대표전화 : 02)2635-2642
원장 : 박희돈 (010-3137-2642)
1. 학술원장 : 곽동훈
2. 학장(신 학) : 정은섭
3. 학장(복지학) : 강동익
4. 학장(리더십) : 윤금순
5. 학장(건강코칭) : 박정숙

(사)한기보 제27대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선출

"보수적인 신앙으로 실추된 한국교회 회복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등불 되겠다"

한기보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2월16일(목)오전11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엘리시안 웨딩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범성 목사(합동보수)가 다수의 찬성으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정명구 목사(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문제선 목사(예장 사명자 총회장)의 기도, 강경선 목사(예장합동총연합총회장)가 성경 행 2:28절을 봉독하고,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주님의 뜻 이루려고 모였나이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해 장대봉 목사(예장 보수합동 총회장), 한기보 발전을 위해서 신한철 목사(예장합동고수 총회장), 한국교계를 위해서 정사랑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 세계선교를 위해서 문기철 목사(예장 보수연합 총회장) 등이 각각 특별기도를 한 후 한상용 목사(예장 호헌 총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지인들을 선정 감사와 공로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박수용 목사(한기보 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어 이범성 목사(본회 상임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의 사회로 박동호 목사(예장 보수총회장)의 기도로 2012년도 제27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어, 각 교단장 31명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고 거수로 21표를 얻은 이범성 목사가 제27대 한기보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전형위원장 이상오 목사(사, 한기보협 중부지부)가 발표했다.

이날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이범성 목사가 신임대표회장 된 것을 선포하고"그동안 여러분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든든했으며,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한다면서, 보수신앙의 건재한 운동을 같이하는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주문하고 퇴임인사를 했다.

한편 신임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각 교단장과 총대들을 향해 인사로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 대표회장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극단 존엄성이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과 여러 가지 비방을 받는 이때 우리 보수교단협의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추된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또한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에 우리 모두가 등불이 되어 밝게 만들어가자고 했다.

또한 이 대표회장은 근간 수개월동안 실무자들인 임원들에 대해 비방하는 글 들이 난무한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족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었으며 부족하지만 교단장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 권고로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주문하고 다함께 한국보수교단협의회가 한국교계에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는 협의회가 되자면서 취임사를 전했다.

한편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합동보수)는 2003년도에 보수교단 협의회의 총무로 발탁된 이래 10여 년간 총무와 상임회장을 역임해왔으며, 직전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를 비롯 역대 대표회장을 모시고 협의회 모든 업무와 운영을 함께 해온 경험이 풍부한 대표이다. 또한 이 대표회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해 전직 회장들, 교단장들과 동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본 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본 협의회가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지탄과 외면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본 협의회는 보수신앙을 고취시키고 한국교회에 선포하여 실추되고 부패되어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다시 회복하는데 개혁이 되고,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바로 잡아가는데 있어 본 협의회가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각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보수교단협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홍보를 펼쳐나아 갈 것이며, 아울러 미 가입된 교단들이나 선교단체에 서신을 보내고 본 협의회가 성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소신을 밝혔다.

이날 본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범성 목사는 합동보수에서 총회 총무를 거쳐 4년간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총회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명성교회
새벽기도 '국제컨퍼런스' 갖는다

명성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명성교회와 오직 주님'이란 주제로 3월 1~2일까지 제3회 새벽기도 국제컨터런스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새성전(김삼환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새벽기도 국제컨퍼런스는 명성교회가 30년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한국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2 컨퍼런스 특징은 새벽기도를 교회성장의 동력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명성교회가 개척시부터 일관되게 제시해 온 '오직 주님'이란 슬로건에 대한 신학과 목회의 중요성을 나눈다는 점이다.

2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교파를 초월한 10명의 강사를 초청,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진로를 제시한다. 강사는 서재일 목사(원주영강교회 원로)가 개회예배를 인도하며, 손석태 박사(개신대학원 대학교 명예총장), 이성희(연동교회), 이수영(새문안교회), 최홍준(부산 호산나교회), 이영훈(여의도 순복음교회)목사, 최무열 박사(부산장신대 총장),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 차종순 박사(호남신대 총장), 이용호 목사(서울 영천교회)가 주제별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제3회 새벽기도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김삼환 목사는 '새벽기도와 교회성장' 또는 '설교와 교회 성장'을 주제로 두 차례 강의에 나선다.

김 목사는 이번"국제컨퍼런스는 이제 6만5000명 이상이 부르짖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절기행사가 됐다"며"CBS CTS C체널 Good-tv를 통해서도 생방송 중계돼 세계 각국 성도들도 동시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선착순 5000명에 한해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 등록을 받는다. 희망자는 교회 홈페이지(msch.or.kr)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전화(02-6930-9730)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식사와 강의자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혁총회, 산하연합, 신학생 84명 졸업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생을 다하는 날 까지 쓰임 받는 사람 돼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산하 신학교는 9일 서울종로구 연지동 백주년 소강당에서 2011학년도 제3기 총회연합 졸업식을 갖고 (대학원부 21명, 대학부 45명, 총회 목회대학원 18명) 등 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 1부 예배는 (서경총회신학 학장 황상모 목사) 사회로 시작되어 (강북총회신학 학장 최영순 목사)기도 (성민총회신학 학장 양은화 목사)가 행 13:21-23절 성경봉독을 하고 길라형 전도사가 특별찬양을, 총회장 이승렬 목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란 말씀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나도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 했으며, 많은 졸업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신학교 졸업식이었다"면서 만학도 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2부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학사 보고에 이어 각 신학교 학장들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이날 총회장 상은 졸업자 민현숙, 김상덕, 이석근, 이양희, 이광직, 등이 받았으며, 이사장상은 원미경, 학장상은 김순덕, 최영실, 동문회장상은 김주학 등 많은 학생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졸업생들에게 훈시를 전한 (개혁신학연구원 학장) 유안근 목사는 "프로가 되지 못하면 영적인 포로가 되기 쉬우니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을 전한 황상모 목사는 "우리 개혁총회 산하 신학교는 위대한 신앙 영웅들의 전통적 산실이며,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써 한국개신교 제2세기의 영광된 역사 창조에 주역이 될 그리스도의 제자 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기관으로 소개하고 참 진리의 횃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성순희 기자 "jtpress1@hanmail.net

2012년도 총회신학교 신입(편입)생 및 신학대학원생 모집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실력 있는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

철저한 현장중심 배운 신학과 목회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훈련하고 적용해 보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과 소개

●신학과 Theology Department
본 신학과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영적 특공대 양성을 위한 신학전문과정이다. 철저한 신학적 사고와 사역현장의 역동성을 가지도록 하는 영성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과를 졸업한 자는 총회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여목회학과 Practical Ministry for women
여 목회학과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현장사역에 중심을 두고 사역할 사명자 양성에 목적이 있다. 이론과 실전을 조화시키며 성도 양육 및 관리, 목회상담, 전도, 새 가족 양육 등을 목적으로 한 교회에 필요한 심방전도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회신학대학원 (교단 M.Div)
본 대학원은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본 대학원 졸업자는 남녀 공히 강도사 고시 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적 우수자는 본교의 교수로 임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영적 특공대를 양성하는데 있다.

●목회자 연구과정
목회자연구과정은 3년 6학기로 목회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실천신학 분야를 교육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수들이 직접 가르친다. 수강대상은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 목회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목회자, 사모, 전도사 등이다. 특히 성경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 교육함으로 성경 중심적 목회에 상당한 유익이 될 것이다.

설립 목적

본 총회신학교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를 교구로 헌신할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철저하게 성령으로 훈련되어 성령을 좇아 생명을 다할 종들을 사역의 현장에 배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 목표

1. 철저히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한다.
2. 철저히 십자가 복음으로 부장한다.
3. 철저한 현장중심의 살아 있는 훈련이다.
4. 철저한 신학적 사고를 갖도록 훈련한다.
5. 성경에 정통하도록 교육한다.
6. 겸손한 인격과 성결한 생활을 지도한다.

교육 내용

1. 개혁주의 신학 교육
2.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영성교육
3. 선교현장과 관련된 외국어 교육
4. 심도 있는 성경 연구
5. 정보화 교육
6. 대체의학 교육

모집학과

과정	모집단위	학제	전형방법
신학부	신학과	2년 6학기	서류전형 면접
	여목회학과	2년 6학기	서류전형 면접
대학원	목회학과 (교단 M.Div)	3년 6학기	서류전형 면접
목회자 연구과정	목회자반	3년 6학기	서류전형 면접

지원 자격

과정	지원자격
신학부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자격을 갖춘 자 2) 세례받은자 및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여목회학과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자격을 갖춘 자 2) 세례받은자 및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	1) 본교단 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국 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목회자 연구과정	1)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전도사, 사모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1년 12월 20일 2012년 2월 29일
전형일시	1차 2012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2차 2012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원서대 및 전형료	신학부 : 원서대 5,000원 전형료 30,000원 대학원 : 원서대 5,000원 전형료 30,000원
원서교부처	본교 교무과 ☎ 02-6448-3927
개강일시	2012년 3월 5일(월)

구비 서류

1)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1통
추천서(본원소정양식)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
3)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4) 추천서(본원소정양식)1통

특 전

1)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2) 본교를 졸업한 자는 본 교단 총회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음
3) 다양한 장학혜택이 있음
4) 본 대학원 성적우수자는 본교의 교수로 임용할 기회를 갖게 됨
5) 본교의 도서관등 제반 교육시설, 정보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제공
6) 국내외 학위 취득 가능
7) 필리핀 국제 대학교 학점교류 인정

세계를 교구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공대 양성

● 찾아오시는길
정동시장
1호선 제기역 1호선 청량리역
동의보감 수산시장
총회신학교
홈플러스 동대문구청
2호선 용두역
· 지하철 : 1호선 제기역 3번출구, 청량리역 6번출구 2호선 용두역 3번출구
· 버 스 : 201- 202, 260, 261, 270, 271, 272, 410, 420, 720, 1221,2221, 2223, 2233, 1215, 1213

총회신학교
● 본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4길 24(용두동 20-15)
● 본부 연락처: Tel.02-6448-3927 / Fax.02-988-8623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 / chonghoe
● 러시아 분교 : 694021 Russia Sakhalin Korsakov Lermontova 4/1
● 러시아 캠퍼스 : Tel.7-424-35-40547
● 이-메일: ciyofc@hanmail.net

통일교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한국교회 가입하지 못하게 성도들 영성훈련으로 무장하라

이영선 목사
(통대협사무총장)

통일교는 2012년 2월 7일(화)서울 마포구 도원빌딩에서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4남 문국진 공동의장(통일그룹 회장)과 윤정로 회장 등 참석자들이 모여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 광역시, 도 본부장 임명식을 가졌다.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력, 국방력을 갖춘 강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각계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다음 달인 3월 7일(수) 공식 출범한다고 통일교 측에서 밝히고 있으니 기독교 성도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통일교가 초교파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행동을 보이기 위해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 시도본부장 임명식을 가졌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강한 대한민국 범국민운동본부가 통일교인지 모르고 들어갈 수 있으니 기독교 교인 중에 각 지역의 유지와 지도자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전국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예배시간에 광고하며, 주보에도 게재하여 단속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조] ※그 외 통일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지도자 세미나

① 각 지역 평화세계를 위한 지도자 결의대회

②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강연회

③ 산수원 애국회 등반대회(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주장)

④ 세계평화 한국 초종교지도자 세미나

⑤ 평화통일 한국지도자 세미나

후원헌금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목사 간증초청 전화: TEL] 02-744-2422 / H·P 018-214-7720

교단 설립 60주년 맞아 총회회관 건립한다

제60차 총회 제1회 임시실행위 갖고 총회회관 건립하기로 결의

재단법인이사회 주관으로 건축 추진… 통합은 계속 진행하기로

총회회관 조감도

본교단(총회장 박성배 목사)이 교단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총회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본교단은 지난 13일 총회회관에서 '제60차 총회 제1회 임시실행위원회'를 갖고 총회회관 건립의 건을 다뤘다.

실행위원들은 장시간 논의한 끝에 재단법인이사회(이사장 박광수 목사)에서 연구,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한 교단 통합과 관련해서는 교단회복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한다고 분명히 했다. 즉 교단 통합과 총회회관을 분리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시행사인 (주)동언개발 회장이 참석해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본교단 총회회관이 포함된 지역은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간으로 지난 2008년부터 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시 교단 소송과 건설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동언개발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약 2만5천평에 지하 7층, 지상 27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언개발 측은 전체 대지의 78.95%를 매입,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미계약으로 인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총 집행 금액에서 5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본교단 재단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실행위원들은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듣고 여러 방면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교단이 나서 추진할 경우 위험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총회회관 건립은 중대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이사장 박광수 목사는"총회회관 건립은 누구나 염려하는 것처럼 중대하고 신중한 문제이다. 그동안 심사숙고하며 자문을 구하고 고민했다"면서"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동언개발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럴 경우 총회회관 가계약한 부분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또 총회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총회회관 건립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광수 이사장은"재단 이사장으로 본교단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총회차원의 사업이 아니다. 재단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그렇더라도 총회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지해 주면 남은 생애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명령인 줄 알고 전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이사회에서도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충분히 사업성과 안정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포기할 것이며 어떤 경우든 총회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회회관 건립이 교단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실행위원들은 그동안 교단통합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총회회관 건립이 자칫 통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실행위원은"선 통합을 하고 총회회관 건립은 힘을 합쳐 연구해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회장 박성배 목사는"한 번도 통합을 안 한다고 한 적 없다"면서"통합은 분명히 한다. 또한 5월 총회 이후 총회장도 안한다"며 일부 총회회관을 연계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총회장은"총회회관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진행하고, 통합은 교단회복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진행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실행위원들은 총회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 재단법인 이사회에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개회예배는 총무 이삼용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허일룡 목사의 기도,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설교, 행정부총무 이동훈 목사의 광고, 재단법인 이사장 박광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관악교구협의회

조찬기도, 제32차 정기총회 가져

관악구청 교구협의회 대표회장 김달수 목사, 관악경찰서 교경협의회 대표회장 김용완 목사가 연합하여 관악지역 국가를 위한 연합 조찬기도회를 선한이웃교회(윤창규 목사)에서 200여명이 모여 가졌다.

이날 관악교구협의회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봉성교회)의 인도로 이강호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가 대표기도를, 노성수 목사(목림교회)는 성경 시편 1편 1-6절을 봉독한 후 김달수 목사(성양교회)가"복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나라와 민족을 위해"이정석 목사(관악감리교회),"나라의 경제를 위해"배인조 목사(함께하는교회),"구청장과 직원을 위해"조준현 목사(대선교회)등이 각각 특별기도를 드렸으며, 윤석봉 목사(강남중앙교회)축도로 마쳤다.

이어 대표회장 김달수 목사는 제32차 관악구청 교구협의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사무차장 노성수 목사가 회원점명으로 개회를 선언했다. 아울러 회무에 들어가 새로운 사업안과 예산, 결산 안 등을 유인물대로 결의하고, 모든 안건은 차기 임원회에 위임하고, 전형위원을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대표회장: 김달수 목사(성약교회),부회장: 박규갑 목사(영진교회), 서안식 목사(순복음교회), 곽정주 목사(반석교회), 권재명 목사(신림중앙교회), 박춘희 목사(새소망교회), 이우영 목사(사랑의교회), 김이기 목사(은혜교회), 윤희화 목사(서울대교회)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봉성교회), 사무차장: 노성수 목사(목림교회), 총무 미정, 협동총무: 정기택 목사(사랑의교회) 서기: 임창섭 목사(한소망교회), 부서기: 장윤제 목사(덕산교회), 회계: 노성수 목사(목림교회) 부회계: 김중재 목사(예은교회), 감사: 김기돈 목사(푸른들교회), 김한성 목사(성산교회)등이다.

또한 증경회장 및 공동회장은 직전회장: 이강호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증경회장: 박영선 목사(봉천교회), 윤석봉 목사(강남중앙교회),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박기수 목사(선민교회), 수석상임회장: 윤창규 목사(선한이웃교회),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김춘환 목사(신도교회), 상임회장: 황진수 목사(성도교회), 김용완 목사(서울순복음교회), 양정섭 목사(평안교회), 이정석 목사(관악감리교회),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최덕순 목사(애광교회), 공동회장: 조준현 목사(대선교회), 윤철환 목사(신애제일교회), 박보근 목사(난곡제일교회), 배인조 목사(광운교회), 김상철 목사(신일교회), 나세웅 목사(중앙교회), 서금석 목사(당곡교회), 서운석 목사(은현교회), 신용백 목사(봉천성결교회),이흥배 목사(신림동교회), 강동인 목사(지구촌교회)

디어스연합총회 신년하례 및 임직예배 드려

디어스연합총회는 2012 신년하례를 갖고 신학노회 주관으로 지난 31일(화)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목사 임직식을 가졌다. 백승길 목사(템신학연구원 이사장)인도로 신년하례 및 임직식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어 배충의 목사(총회고시위원장)가 기도를, 김선영 목사(총회 서기)가 성경봉독(계시록 3:7~8), 맥스힘 사역단(남.여 목회자), 볼리스찬양단(신학생일동), 드론스(노방전도사 역훈련원),등이 각각 특송에 나섰다.

이어 이형춘 목사(신학노회장)은"열린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박규남 목사(템신학연구원 교무처장)가 봉헌기도를, 송한기 사역자 외(국가이즈선교단)의 특별찬송에 이어 정유철, 이기용, 김종율을 전도사로 임명하고, 구룡 바산타를 네팔 선교사로 임명했다. 아울러 안수위원장 이형춘 목사, 안수위원 지용운, 배충의, 박규남, 백승길, 박윤수 목사 등이 일본인 齋藤惠子(Saitou Keiko)를 목사로 안수하고 공포했다. 또한 박윤수 목사(일본 비전공동체)가 권면을, 지용운 목사(한국개신교총연합회장)의 축사, 송한기 사역자 외(굳가이즈 선교단)의 축가가 있은 후 임직자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디어스연합총회는"순교자 연합체" 템코리아 세계선교 본부산하 세계선교사 양성기관으로 (사)한국개신교총연합회에 소속된 단독교단이며, 템(TEMM)신학, 신학연구원은 총회직영신학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2시
삼일밤 오후8시 금요기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롬방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 요 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맛과 예수사랑! 더업 레스토랑 의정부 녹양점

고객을 대할 때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고객에게 독을 주는 일이다

손우진 점장은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방부제도 0.1%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조미료를 사용하여 최고의 맛을 내며, 식당의 신념은 사랑이 들어 있지 않은 음식은 고객에게 독을 주는 일이기에 오직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조미료로 힘쓰고 있단다.

더업 레스토랑을 개업하게 된 동기는 몸이 아파서 지난 10여년을 무직자로 살아왔는데, 하지만 출석하는 교회의 어려움을 보다 못해 임대료를 자신이 해결하자는데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장 손우진 집사...

그렇게 시작한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식당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많아졌다. 그는 또한 형편상 힘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있음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손 집사...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더업 레스토랑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28번지 2층 소재, 아늑하고 아담하며 공간을 활용한 작품사진전시를 하고 있으며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식당이다. 점장과 요리사는 기독교 정신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 개점되었으며, 음식을 통한 선교 사업장이다. 매주 주일은 휴점을 하고, 주초를 금하고 있으며, 세속적인 음악이 아닌 찬송과 복음송으로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다. 어디에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을 고급스런 맛과 저렴한 가격대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진리 파수의 식당으로 모델이 되고자 기도하고 애쓰며 운영하고 있는 1호로 시작한 서울 궁동 더업 레스토랑에서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곳 의정부 전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이용해 주시길 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의 금액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의 재활, 치료,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쓰고 있다는 점장 손우진 집사...

더업 녹양점은 2010년 9월, 현재의 자리에 개업을 하고 지난 3월 중순부터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크리스천 기업이며, 다른 지점과는 달리 내부공간을 기독교 사진을 전시하는데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영혼의 갈급함까지도 채워주는 공간이 되고자 믿음으로 시작되어 매일 경건한 시간을 갖고 영업하면서, 매주 금요일은 인근 목사님들을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직원과 다른 참여자가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근 교회에 출석하도록 돕고 있다.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렵기에 이곳의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교회의 전도지를 비치하고 있으며, 좋은 내용은 벽에 붙여놓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간의 신앙서적도 비치해 놓고 있다. 때론 고객들의 기증, 본점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신앙서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영업시간에는 주옥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

식당의 모든 재료는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늑한 문화공간으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모 공동체 사무총장인 박 모 목사와 일행이 이곳을 찾아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면서 "음식이 맛있었다, 잘 먹었다"는 등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또한 윤00(여,72세, 광장교회 권사)는"이곳을 우연찮게 알고 남편과 같이 왔는데,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 후로는 이곳을 더 오게 되었다"고 한다. 믿음의 자녀가 운영을 하는 곳이라 더 오게 되는데 번창을 기원했다. 분위기도 아늑하고 조용한 게 참 좋다면서, 젊은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축복받는 식당이 되길 기원했다.

이곳은 주방실장 이지연(새움교회)집사, 점장 손우진(부흥교회)집사 등이 일하고 있는데 주방실장 이지연 집사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 LA에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고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역 이민을 하게 되었고 현재 한국에 크리스천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전문 아메리칸식 레스토랑 조리기술을 이수하고 최고의 맛을 내고자 헌신하고 있다.

또한 점장 손우진은 이주연 목사의 '산마루서신', 춘천 성시신문 표지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봄내 호스피스 '아름다운 동행' 표지사진을 제공했다. 현재 더업 갤러리에서 지난해 9월 19일부터 〈내가 만난 십자가〉란 주제로 34점을 비공식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곧 〈내가 만난 십자가〉 두 번째 전시를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사진을 통한 전도의 방법으로 기획된 것이다."이곳이 크리스천 문화센터와 의정부 식당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길 원한다. 믿음의 자녀들이 와서 편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사진도 보고 식사도 하고 또한 교제도 하며 쉼을 얻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회복하여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제적으로 알코올 약물 중독 자들과 그 가정들을 대상으로 전문 선교하는 기독교국제금주학교와 예장합동 서울 남노회 소속 새움교회(총신대학원 85회 김도형목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향후 더업 녹양점은 이러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개업 1주년 기념행사로 더업을 찾는 고객들의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예정이며, 인근 교회의 협조를 얻어 노인들에게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다. 사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찬양가수를 초빙하여 작은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가을에는 성시 및 성화를 전시할 계획 하에 섭외 중에 있다.

기독교 사진을 1년 내내 상시로 전시함으로써 사진을 통한 전도를 꾸준하게 하여 더업 녹양점이 단순하게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도 채우는 사역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www.cits.or.kr 기독교국제금주학교 / 새움교회 02)2682-2092

더업 녹양점 031-855-0108

확인하지도 않는 언론의 보도 태도

'목사'라는 호칭 남발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

지난 2월 11일 전남 보성 지역에서 발생한 모 종교인이, 자녀들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에 대하여 엉뚱하게도 언론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가운데 사용하여 교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독감에 걸린 자녀 3명에게 모 종교인이 잡귀가 들렸다고 폭행을 하였고, 숨진 지 10일이 지나도록 시신을 방치한 엽기적 사건이다. 그런데 각 언론들은 이 종교인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다.

그러나 곧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자녀들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방치한 사람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언론들은 어떤 종교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기독교와 직접 관련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기독교 성직자의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므로, 기독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을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크게 가늠할 수 있는 '목사'라는 용어를 마구 사용하였다. 이럴 경우 기독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오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선 각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KBS는 2월 11일 뉴스를 통해 '목사가 독감으로 숨진 자녀를 기도하며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MBC는 '교회 목사의 세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SBS도 같은 날 8시 뉴스에서 '한 목사가 독감에 걸려 숨진 자녀 3명을 기도로 살리겠다며 집안에 방치'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또 YTN은 '보성 교회서 목사 자녀 3명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도 11일 '목사 숨진 자녀 기도로 살린다며 방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터넷판을 통해 '목사 기도로 살린다. 자녀 3명 죽은 뒤...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감기 걸린 삼남매 목사에게 맡겼다가 숨진 채...'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판에서 보도하고 있다. 문화일보도 '기도로 병 치료 목사 자녀 3명 숨진 채 발견'이란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울신문도 '40대 목사, 자녀 3명 죽자 기도로 살리겠다며...'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만이 12일 인터넷판을 통해 '사망한 세 자녀를 기도로 살린다며 시신 방치한 부모'라는 제목과 함께, 박 씨(종교인)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정통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중앙일보는 11일자 인터넷 판에서 '자녀 방치 숨지게 한 보성 한 교회'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일에는 '큰 딸 구토하다 피를...목사 세 자녀 부검 충격'이란 제목으로 역시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겨레는 11일자에서 '목사가 감기 걸린 자녀 방치해 3명 사망'이란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일보도 11일자에서 '목사가 숨진 자녀 3명 살린다며 방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매일경제도 '보성교회서 목사 자녀 3명 숨진 채 발견'이란 제목으로 교회와 목사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경제도 11일 보도에서 '목사가 숨진 자녀 3명 살린다며 방치'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언론들과 다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을 폭행하고, 숨진 시신을 방치한 장본인은 정작 목사도 아니고, 정통 기독교 소속이 아님도 바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정통 교회나 기독교 성직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사건에 접근하는 태도는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아 보도의 기본과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의 죽음과 이를 방치한 것이 부모라는 것에서는 누구라도 충격일 수밖에 없다. 또 그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에서는 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충격적 사건을 정통교회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사실 하나만 확인했어도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오해와 비난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주의를 게으르게 한 것은 언론의 전적인 책임이다. 물론 일반 언론들이 정통 기독교인지, 사이비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즉 간단한 질문만 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소속 교단이 어디인지' '신학대학을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역 기독교 연합회나 주변 교회에 문의를 해 보아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도 안 되면 기독교 연합기관에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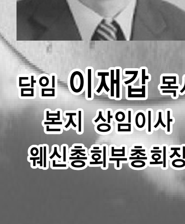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관계에서 어느 분야보다 신뢰를 받아야 할 언론들이 한결 같이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보도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목사'와 '교회'라는 수식어를 붙여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모욕하기 위한 생각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여러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통해, '목사'와 '교회'를 빼거나 아니면, 그 종교인이 정통 기독교나 신학을 공부한 바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이미 앞 서 보도한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언론은 보도 기능을 통해 보도 대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는 정작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정직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들은 내용을 수정함은 물론, 기독교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상임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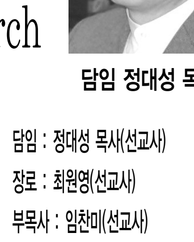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 -- 섬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 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더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 정대성 목사(선교사)
장로 : 최원영(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선교사)
선교목사 : 조에스더 목사
협동목사 : 이충일(의료선교사/의학박사)
선교사 : 함다니엘, 황연화, 최미란
전도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김혜정
안수집사 : 강보승, 유신성
찬양지휘자 : 유신성 집사
반주자 : 정선미, 김진복, 박신애, 박시온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금.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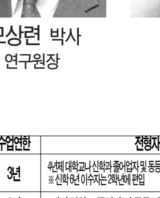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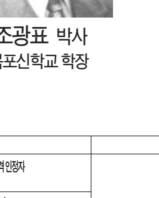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모상련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 : 계절학기(여름,겨울) 야간 : 월,화,목,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학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과	2년	고졸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외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004, H.P 010-9049-3731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설교

강해 보배로운 시련(4) 〈 행 1:15~26 〉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죽은 후, 시몬 베드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제비뽑아 한 제자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 중의 하나로 사도 바울을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으나, 시몬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인본적인 신앙이며 빼내야할 찌꺼기입니다.

시 16:10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시록 등 환란날의 예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빠져야할 찌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보배로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석이 됨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이끌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순교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말씀에 의하여 순교할 수 있고 이긴 자가 됩니다. 말씀이 자신을 결박하여 그 말씀에 이끌려가게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40~41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으시나, 제자들에게 영은 준비가 다 되었지만 육신이 연약하다고 한탄하십니다.

이어 45절에서"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 자신이 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46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또한 41절에서 우리의 영은 바쳐지기로 준비되어 있으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당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좇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3부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벧후 1:1~2)

마태복음 25장에는 등과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 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지극히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도 그와 똑같이 귀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이겨냅니다.

시련을 거쳐 세워지는 믿음

인본적인 신앙으로 시련의 과정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반석인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보배로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 만드시기 위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은에 낀 찌꺼기와 포도주에 섞인 물이 빠지고 순전(純全)한 은이요 포도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본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 찌꺼기들을 빼냄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베드로는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벧후 1:1~2)합니다.

벧후 1:14~15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앎이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변형산에서 엿새 후에 영광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와 같이 죽임 당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1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순교할 것을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보석이 되는 시련을 거쳐 자신이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2장21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본이 되심과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벧전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마 24:30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 보석되게 하는 시련을 주시며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배로운 시련을 거치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 럼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 목적

이준철 목사
칼럼리스트
본지 상임이사

인생을 일종의 여행이라고도 표현한다.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이용하든 또는 걸어가든 여하튼 산다는 것은 여정(旅程)이다.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고 그 길 떠남의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목적지나 목적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방황이라고 한다. 방황하는 인생은 쉽게 좌절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민폐(民弊)를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바로 인생들로 하여금 삶의 건전하고도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고 그 목적하는 바를 성실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지도해 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즉,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하고 고유한 영적존재인 것이다. 이 영적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차원의 확신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브람 마스로우의 인간 욕구설에 의하면 인간은 제일 밑바탕에 동물적 욕구(식욕, 성욕)가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자기실현 욕구가 있다고 한다.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또 그 목적하는 바를 성취했든 못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 여행의 목적지와 그 목적하는 바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서 자신이 전 생명을 걸고 믿으며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함은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결코 갈등이나 실패가 있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비중을 다른 신앙적 요소들 보다 지나치도록 더 크게 갖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관건이기도 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참 기독교인이라 말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생(靈生)도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마치 구원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 이상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며 비진리로 치우치기 쉽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여정의 목적지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신앙의 목적은 사랑인 것이다. 만일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라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더 이상 여행 할 일이 없는 것이 된다. 곧바로 영생(永生)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과는 이별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기독교인은 그 목적인 사랑을 위해 천로역정하는 것이다.

"성경으로 본 건강학"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37)

황성주 박사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레 7:23-24)

성경의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방의학의 세밀한 지침서이다. 놀랍게도 의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정교한 진리성은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식용으로 허용하신 소, 양, 염소(레 11장) 등 깨끗한 동물에도 먹어서는 안될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곧 지방조직(기름)이다. 왜 하나님은 동물성 기름을 금하셨을까. 한때 동물성 기름에만 있는 필수지방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성경의 기록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이던 시대가 있었다.

필수지방산이 3가지에서 한가지(리놀레산-식물성 기름에 있음)로 줄어든 오늘날, 식물성 기름만으로도 훌륭한 식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영양학자가 아니더라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되었다. 더욱이 동물성 기름이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 질병인 동맥경화와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암(유방암,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동물성 기름은 인체에 전혀 무익한 "건강의 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현대의학에 의해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사랑의 배려"임을 확인했다고나 할까. 문제는 기름기 없이는 고기를 먹은 것 같지 않다는 현대인의 변질된 입맛에 있는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11%가 "콜레스테롤 위험군"에 속한다는 한 연구보고는 예방의학을 하는 필자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치의 상승이 곧 본격적인 성인병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성지방의 섭취량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도시인들의 경우 하루 50g 이상으로 구미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7년 동안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경계상황에서 "동물성 기름 무용론"을 주장한다고해서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기름(포화지방산)이 많은 고기, 달걀, 버터, 우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 식물성 기름(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동물성 기름을 먹을 때에는 식물성 기름과 같이 먹을 필요가 있는데 삼겹살과 참기름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섬유질의 충분한 섭취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콜레스테롤(LDL)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콜레스테롤(HDL)도 있다.

동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일종의 요구르트)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에게 심장발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명백한 모순을 파헤친 결과 이들은 대부분 가축몰이꾼이며 하루에 평균 40km를 걸을 정도로 운동량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이후 이들에게 HDL의 수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금은 규칙적인 운동이HDL을 활성화 시켜주는 최선의 방법임이 상식화되고 있다. 반면에 흡연, 약물남용(특히 피임약) 등 불건강한 생활은 HDL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성경의 원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하나님이 배려하신 다른 대안이라도 받아들여 건강의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어문법(전 준덕 교수)
  알기 쉬운 52주 헬라어 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교수
(본지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송파구 오금동 118-20(2층)
- 문의: 02-409-3601, 070-4100-360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칼럼

수화자의 미소

소리에 있어 음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순음 즉 단순진동의 음이 있고, 고른음(악음) 목소리의 진동처럼 주기적인 진동음과 시끄러운음(잡음), 타악기처럼 불규칙한 음으로 분류된다. 사람은 누구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감성은 소리로 음악이라는 끝없는 창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상하며 인성의 촉각을 파장시키며 인격형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양음악에 있어서 교향곡(Symphony)은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표현하는 18세기 이후 음악의 거장들 베토벤, 슈벨트, 멘델스존 등 많은 대가들의 작품으로 세계 어디를 가나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마치 인간의 성장 과정과 같은 삶을 표현하고 있다. 간추려 보면 제1악장 (Allegro) 빠르게, 제2악장 (Molto Vevace) 매우 빠르게, 제3악장 (Adagio) 느리게, 제4악장 (Presto) 가장 빠르게 로 구성된 곡이다.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인격향상은 물론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같이 소리는 감성에 있어 촉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와 소리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소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명을 가진 인격체는 수만종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월등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를 보면 순음과 고른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잡음이 더 많아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모든 분야에 있어 특히 정치 분야는 잡음이 너무 많아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혼동만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정통성이 있어야 모든 국민이 협조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정당의 명칭을 바꾸며 당원들은 자기 설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모습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처로움을 느끼게 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주자들의 발걸음이 쉴 사이가 없이 바쁘다. 마치 교향곡의 제4악장처럼 매우 빠른 심신의 모습들이다. 마지막 승리의 주자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결정될 것이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을 생각해 보자. 소리를 듣고 말하는 우리는 행복 중에 행복자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장애는 여러 계층이 있다. 그 중 청각 장애는 말을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장애는 사물을 볼 수 없으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신체적 장애는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 하겠는가! 생명이 있어 장애를 디디고 일어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어느 날 기차역 대합실에서 60대의 노신사 두 사람이 열차를 기다리며 언어 장애로 인해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수화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웃음을 보게 된다. 소리 없는 웃음은 얼굴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만족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반백의 노신사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 같았다. 그들의 수화는 계속되었으며 표정 역시 때로는 엄정하며 때로는 자애로운 모습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사업 문제 등 어느 내용의 대화인지는 모르지만 장시간의 전반적인 대화(수화)에 나는 절로 고개 숙여짐을 느끼었다.

그들의 웃음은 소리없는 미소로 충분하였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평생을 수화를 하면서 살아온 데 대해 고마움 마저 느끼었다. 지금도 그들 수화자의 미소를 잊지 못하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은 소외 계층에 대해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 문제와 영세민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시책이 시급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전국에 노숙자가 기차역 버스주차장 등 산재해 있는 인원이 약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는 공직퇴직자들도 상당수가 포함되고 있다. 다행히 사회봉사단체들이 자비를 들여 하루에 점심 한 끼 정도를 제공하므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노숙자와 영세민과 장애인들에게 일하며 먹을 수 있는 일터를 속히 제공해 떳떳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경제 성장을 이야기 한들 무엇 하겠는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국내에 노숙자가 늘어만 간다면 잘못된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노숙자도 영세민도 장애인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행복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비록 헐벗고 추한 모습을 가졌으나 일터가 있고 식사가 제공되고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정상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잘 살아가는 집에는 육아비와 교육비 등을 제공하는데 음지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고통 하는 소외계층은 왜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것인가! 수화자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이들에 대한 시급한 안정대책을 바란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 신문방송 상임이사

한복협 조찬기도회 '한국교회의 화해와 협력 위해'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신문로 새문안교회에서 '한국교회의 화해와 협력'이란 주제로 월례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목회자들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이 사회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화해와 협력, 일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최병국 백석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비윤리적 행동과 물신주의, 교권욕, 자신만이 절대선이라는 집념을 벗어나지 않은 한 분쟁 극복은 물론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정 선언이나 말의 옳음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순교자의 자세를 보일 때 한국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웅 덕수교회 목사는 화합 실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통합하고 하나의 연합기구로 교단장협의회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손 목사는 "이 안은 2007년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로드맵 10단계 중 4단계까지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로선 이 길로 가는 길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는 에큐메니칼 입장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과 북한 동포 지원, 종교간 대화 등을 통한 교회 일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있는 것에 대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이며 분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다만 분열 가운데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하려는 인사들은 가능한 한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사이드에 제쳐놓고 공통 분모부터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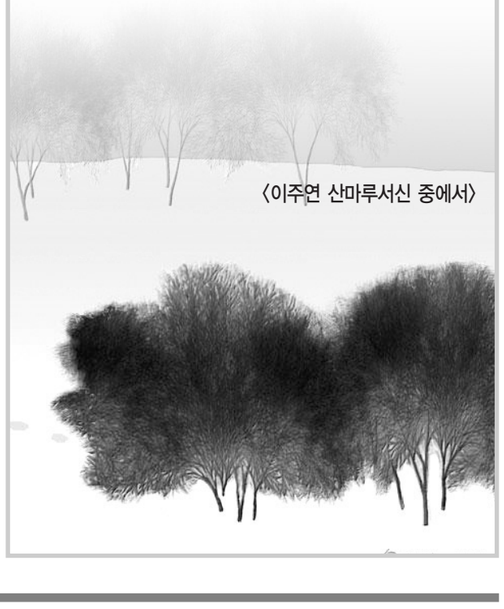
발표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 림인식 노량진교회 원로목사는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눅 19:3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림 목사는 "하나님의 세계에선 폭력과 사랑이 싸우면 사랑이 이긴다"며 "용서와 사랑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찬에 나선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가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먼저 하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복협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김명혁(강변교회 원로) 목사를 회장에 연임하고 이옥기(UBF 부대표) 목사를 총무에 선임했다. 북한 동포(결핵환자)와 중국 엔벤 지역 조선족 돕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차가 있는 풍경

이런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친환경적이고
동화 속 같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이 신나는 나라!
우리나라 어느 한 마을에도
이런 세상 펼쳐지면 얼씨구 신나지 않을까요"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도시에서는
아침마다 통학버스 대신 친환경적인
19세기식 마차가 집집마다 들러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하는데,
바람에 부드러운 갈기를 날리면서
흰 콧김을 내뿜으며 천천히 거리를 오가는
말의 자태 또한 그린 듯이 아름다울뿐더러
그놈이 도심의 한복판에서 엉덩이를 들고
풀내음 가득한 똥을 마구 내지를 때엔
어른들은 물론 마차 안의 아이들이
제일 환호한다고 한다."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유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유를 가질 만큼
힘이 있음을 뜻합니다.<연>



〈이주연 산마루서신 중에서〉

열두광주리기도원

○ 선한목자부흥사회대표회장
○ 열두광주리기도원원장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김평호 목사

열두광주리기도원 김평호 목사 집회일정

2012년 2월	6일~9일 13일~16일 20일~23일 26일	영성기도원 열두광주리기도원 음성생수기도원 보아스사랑의집
2012년 3월	5일~8일 12일~15일 19일~22일 29일	열두광주리기도원 백합중앙교회 구미갈멜산기도원 행복한교회
2012년 4월	2일~5일 7일~11일	열두광주리기도원 필리핀부흥성회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
H.P:010-8411-0191, TEL:031-535-6975

담임목사 오종설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년예배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밤 9:00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모임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충남사모아가대미	화요 오전 11:00
2	바둑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정한시간
5	숫돌이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숫돌이	주중 매일
8	체력단련	주중 매일
9	흥성아동방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충서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흥성제일장로교회

주소 : 충남 흥성군 흥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 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4층 나사렛성전
	주 일 오후3:3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칼럼

김홍도 목사의 삼위일체 양태론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해는 기독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금란교회가 소위 메이저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통해서 기독교회를 변증하는 내용을 담아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광고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회의 입장을 변증하는 광고를 실었다.

기독교회를 세상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대단한 용기와 함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나 단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점에서 고무된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내용을 모두 읽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소제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게 읽어가던 중 눈을 의심하게 하는 문구가 보여서 그 부분은 잠시 읽었다. 읽어가는 순간 가슴이 떨리고 어안이 벙벙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기독교회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곳이었다. 즉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다.

정통기독교회의 신관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믿어야 한다.

어떤 종교든 신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양태나 종교적 의식, 나아가서 신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종교의 신관에 대한 이해는 그 종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때문에 신관에 대한 이해와 확립은 그 사람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종교의 특성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기독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중에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특별하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적 기독교회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기독교회 안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중에는 지금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역사적 기독교회의 정통적인 입장은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어떤 교파인 것과 관계없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금란교회의 광고는 기독교회의 하나님을 알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띈 문장은 차라리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심각한 마음으로 읽어야 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하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양태론적 방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이해할 경우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만다.

양태론적 삼위일체이해는 전혀 기독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으니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회의 신은 양태론적 하나님으로 이해할 것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광고를 하고도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니 어찌해야 좋겠는가?

그 정도의 기획광고를 내려고 했다면 당연히 원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만에 하나라도 금란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신관이 양태론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광고를 냈으니 누군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정정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전체 기독교회의 문제고, 좁게는 감리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 후 이에 대한 입장을 정정했는데 필자가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에 이 글을 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금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많은 경우가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금란교회 정도의 규모, 또한 적어도 기독교회를 세상에 알리고 기독교회의 입장을 천명하려고 계획된 광고라면 실리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비서진이나 목회자들의 검토 내지는 신학자들에게 의뢰해서라도 한 번쯤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광고로 인해 기독교회의 신은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전국에 전해졌으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는지 그 답이 묘연하다. 많은 돈을 드려서 한 일임에도 결과는 수습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반응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엄청난 오류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왜일까?

이종전 목사
인천 만수남부교회

민통 광란의 역주행 방치해선 안 돼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 폭동반란 유혈투쟁불사, 복수혈전 다짐

대한민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요건을 갖춰 선관위에 등록 된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서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정당이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설립의 대전제를 일탈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2월 14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등 19개가 있으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친 정당은 한국미래당 대한국당 국민생각 등 16개에 달하여 우후죽순 격으로 정당이 난립하여 헌법상 집회결사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17일 현재 국회재적의석 295명 중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 174, 민주통합 89, 자유선진 15, 통합진보 7, 창조한국 2, 무소속 8로 돼 있다. 이중 민주통합과 통합진보(96명)가 2008년 촛불폭도와 연대 ▲6.15, 10.4실천을 요구하며 ▲한미FTA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핵안보정상회의반대에 나서고 있다.

15일 민통당 통진당 진신당 등 정치권과 민노총 참여연대 전철연 평화넷 평통사 환경연합 YMCA전국연맹 등 악명 높은 종북반역연합세력이 총 출동하여 3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을 결성 핵무기와 핵발전소 감축과 폐기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소위 '핵안보정상회담대항행동'은 전범집단 북괴 김정은의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핵안보정상회의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같이 北이란을 겨냥한 핵 물질 이동 차단 조치는 국제법적정당성 논란과 동북아와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며 미국과 MB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민통 통진의 〈광란의 역주행〉은 〈반미 반체제〉로 함축 되며, 구체적인 투쟁방향은 핵무기 감축이란 외피를 씌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악몽 관련 괴담을 양산 무차별 유포 확산시킴으로서 문규현이 주동이 됐던 2003년 7월~11월 부안방폐장건설반대 폭동을 삼척 울진 월성 영광에서 재현하려는 속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폭력투쟁을 전개함으로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MB정부와 정면충돌로 반정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4월 총선에 종북반역세력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흉계로서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을 성공시켜 강정기지반대, FTA반대에 힘을 실어 대선판도를 뒤엎을 凶謀이다.

종북반역세력이 〈핵안보정상회담대항행동〉에 착안한 것은 멀리는 부안방폐장건설반대폭동 교훈을 살리는 것이며, 가깝게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교훈과 지난해 9월 15일 단전사태와 BLACK OUT에 대한 공포심을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하여 동서해안 원전벨트에서 동시다발적인 민란 폭동을 유발 혼란조성에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총선대선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겠다는 선거 전략이 아니다. 소위 '진보대연합'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18대 대선 당시 〈반보수 진보대연합〉으로 "유신의 毒草를 제때에 뿌리 뽑아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라"고한 北의 선거투쟁지령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종북반역세력이 당면해서는 연방제를 규정한 6.15와 국가보안법폐지를 다짐한 10.4실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정일과 김정일의 지령을 이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0년 9월 28일 제정 된 노동당규약과 2012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요구하는 적화통일노선을 관철하는데 목표들 두고 있다.

북괴가 주장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란 자주=미군철수, 평화=베트콩식내전불사, 민족대단결=통일전선구축 연방제 적화통일을 뜻 하며 이를 2010년 9월 28일에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는 당면목적은 북에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이며 최종목적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적화통일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남침 전범 집단 북괴의 주장이나 장단기 목표가 아니라 노동당 통전부가 만든 노동당 들러리 사민당과 지속적으로 내통해온 민노당(진보통합)이 제1야당 민통당과 북이 지령한 〈반보수진보대연합〉기치아래 촛불폭도를 망라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선거공조 형식으로 강력하게 결속 야합하여 국내에 제2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1차적 목표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는 2007년 1월 1일 김정일 지령실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통당 한명숙, 문성근, 문재인이 〈복수〉를 다짐하고 나섰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통당이 주장한 복수가 노무현의 유일한 업적인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를 통해서 노무현 자살에 대한 복수가 아님이 분명해 졌으며, 그들이 다짐한 복수는 사망한 김정일 '최고존엄'에 대한 조문불허에 대한 복수이다.

결국 종북반역세력 연합이 김정은을 대신하여 복수혈전을 벌이겠다는 뜻이며 문성근의 백만민란 주장에서 나타나듯 그들의 투쟁은 북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계급노선, 군중노선, 무차별폭력에 입각한 〈유혈폭동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부안방폐장폭동, 평택대추리폭동, 광우병촛불폭동으로 실험을 끝낸 결정적 투쟁이다.

대한민국은 민통 통진과 촛불폭도들에 의해 국회는 전기톱난동 쇠 해머폭력 최루탄 테러로 초토화되고, 사법부는 가카새끼, 빅엿 등 '너희법연구회'가 점령하고, 행정부는 전공노와 민공노로 인해 민노총에 접수당한 상태에서 MB정권이 촛불폭동에 무릎을 꿇고 '中道'를 선언한 이래 2MB OUT, 쥐박이 타령이 일상화 돼 버렸다.

그러나 임기를 만 1년밖에 안 남긴 MB로서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단 1분 1초라도 소홀이 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국가명운이 좌우 될 총선대선에 임하여 북괴 김정은의 불장난과 남한 내 폭동반란세력의 민란음모를 저지 분쇄함은 물론 북의 직간접지령에 놀아나는 반역세력을 소탕 박멸해야 한다.

통진 민통은 이미 헌법에 위배되고 정당법 및 선거법에 위반 되는 요소가 담긴 강령과 당헌을 가지고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러 헌법에 보장 된 결사의 자유와 정당설립의 요건에서 크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헌재에 제소 해산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종북정당 몇 개가 사라지고 빨갱이 몇 놈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는다.

[참고 1] 북괴 노동당규약(2010.9.28)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적화통일)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참고 2] 북괴 2012년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중략)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남한 내에 종북반역정권수립)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교단 및 노회 탈퇴공고

본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였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주예수사랑교회
담임 변종술 목사 외 교인일동

지저스타임즈 광고문의

인터넷방송 : 베너광고 및 팝업광고
www.cpj.kr(크리스찬포토저널) CPJTV방송,
www.jtntv.kr(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전국 20개 지사와 해외 25개 나라 지사가 선교사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신문방송사입니다.

본사문의 : 032-672-3031(팩스겸용) 070-8230-0034
대 표 : 010-5468-6574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편 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층 202호)

크리스천다움 스피치 (5)

'마음의 언어'

전아 목사
다움스피치센터 대표

성경 잠언서 23장 7절「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 내면의 생각이 그 사람의 현재를 만든다. 때로 내면은 그렇지않으면서 겉으로만 훌륭한 자화상(自畵像)을 그리려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약하지만 강자처럼, 사실은 추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은 의심투성이이나 깊은 신앙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려는 허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언어와 외적인 언어가 괴리감(乖離感)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몸짓과 표현, 또는 언어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자신과의 대화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대화를 막히게 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화상은 우선 억지로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내면의 얼굴, 내면의 자화상은 바꾸어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자화상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어떠한지 세밀히 아신다. 또한 얼마 후면 사람들도 그 사람의 내면 곧 그의 진짜 모습의 자화상을 볼 수 있으며 그 사람의 깊은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

성경은「무릇 지킬만한 것 중 네 마음을 지키라」(잠4:23)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내면의 자화상에 충실한가? 나의 속사람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의 귀는 무엇을 들으려 하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의 손은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의 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만일 다른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미움의 눈, 이기심에 가득 찬 양심, 부정한 생각,모든 악한 마음, 게으름, 나약함, 염려와 근심들. 그러나 우선은 다른 사람에게 그 내면을 가리고 지나쳐버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밭에 뿌려진 갖가지 생각들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작고 큰 열매로 맺어져 그 사람의 위인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만으로는 그 사람의 언어를 다 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만으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내면의 자화상을 겹겹이 두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표출해 내려 한다. 예로부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하여 독심술(讀心術/mind-reading)이니 심리조정술(心理調整術/mind-control)이니 하는 것들이연구되고 있다. 로버트 메스터스(Robert Masters)와 진 하우스톤(Jin Houston)이 쓴 'MIND CONTROL' 서적의 서두에 보면 '현대는 번거롭고 복잡한 시대이다. 때로는 삼중인격이 강요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더구나 대인관계를 유리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한순간 한순간마음의 움직임이나 흐름, 기분의 변화와 잠재의식 및 심층심리를 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목자가 양떼의 마음을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상대의 마음을 유린하기위하여, 삼중인격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누군가 자기 자신을 환희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여 보라.

그것도 전자의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아니고 무언가 이겨보려는 승부 의식에서라면 그 목적이 보이는 즉시 더욱 더 삼중문을 걸어 잠그려 할 것이다. 마음의 문이란 상대방이 훔쳐보아 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열므로 열리는 것이다. 심층심리학, 정신분석학, 심령과학, 독심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전략적 화술 등은 자칫 인격적 자화상을 빚어내기보다는 비인격적 자화상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나기게읽기 전, 먼저 내 마음부터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기본법칙은 하나님께서 먼저 실행하시었으며 또 인간에게도 권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오래 인내하신다. 또한 자신에 대한 계시도 부분적으로 주시며 성숙을 통하여서만 듣고 만지고 천천히 다가오게 하셨다. 이 계시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인류는 서서히 하나님의 자화상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3:11)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석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1. 여호와를 불렀더라

성경: 창세기 4장25절-26절 찬송가 430장

본문을 보면 아담의 가정에 셋이라는 새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신 셋이라는 자녀의 계보를 가인의 계보와 구별하신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 '여호와를 불렀더라' 고 말씀합니다. 셋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셋은 가인의 계보와 구별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해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낳았고 죽었더라

성경: 창세기 5장1절-32절 찬송가 430장

본문을 보면 에녹의 경우를 제외하고 '낳았고, 죽었더라' 가 반복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인의 계보에서는 '낳았더' 라는 말 밖에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고 하신대로 실제로 아담의 후손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낳는 일만 있고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의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현실에만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삶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배우자의 선택조건

성경: 창세기 6장1절-2절 찬송가 559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결혼제도가 파괴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이는 믿는 자들이 영적인 삶은 무시한 채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이 주는 쾌락에 빠져 믿지 않는 자들과 쉽게 만나 가정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나의 영원의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세상을 넘어 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경: 창세기 6장3절-7절 찬송가 288장

본문을 보면 인간들의 모습이 상당히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좇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인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만큼은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의인이요 완전한 자

성경: 창세기 6장8절-12절 찬송가 283장

본문을 보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되어 집니다. 당시 노아가 의인이라 불리 울 수 있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평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가지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는 평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하나님의 구원 역사(1)

성경: 창세기 6장13절-22절 찬송가 25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 심판을 피해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대비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하나님의 구원 역사(2)

성경: 창세기 6장13절-22절 찬송가 264장

본문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행했던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으며 또한 자신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정들이어 마지막 심판때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나 하나로 인하여

성경: 창세기 7장1절-24절 찬송가 269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시겠다 한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노아의 의로운 믿음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내 마음 속에 네가 있다.

성경: 창세기 8장1절-12절 찬송가 385장

본문을 보면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늘 잊지 않고 보호해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성경: 창세기 8장13절-22절 찬송가 337장

본문을 보면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안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기약없이 기다리는 1년이라는 기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있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인내했기에 찬란한 영광을 맞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함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성경: 창세기 9장1절-7절 찬송가 212장

본문을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심을 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무지개 언약

성경: 창세기 9장8절-17절 찬송가 548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 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 창세기 9장18절-29절 찬송가 459장

본문을 보면 노아 또한 실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 앞에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근신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만큼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한결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10장1절-32절 찬송가 490장

본문은 노아의 자손 70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처럼 크게 번성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

성을 점령한 적의 장군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이 성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만 가지고 오늘 자정 안으로 나가라."이 명령을 들은 부녀자와 어린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하나씩 들고 남편이, 아빠가 적의 칼에 숨질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며 성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의 보물은 하나도 들지 않고, 자기 남편을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답도 크구나, 너마저 죽고 싶으냐?" 그러자 여인이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업은 이것은 장군에게는 하찮은 것이오나 제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자 장군은 그 여인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한다.

만약에 내가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 은행통장, 결혼예물, 땅문서, 아니면 숨겨놓은 비상금... 가장 귀중한 보물!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텐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하여 음식준비를 하느라 부엌에 서서 애쓰고 있을 아내를 위해 수고한다고 격려하며 손 한번만 잡아준다면...

꽉 막힌 도로에 갇혀서 쉬지도 못하며 집을 찾아 운전할 남편을 위해 어깨 한번만 주물러 준다면... 그동안 받기만 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담긴 작은 카드 한 장씩만 보내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물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보물이 보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담임 정일량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 락 원 예 배	오후 3:00	영 락 원 예 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꿈을 이루고! 터를 닦으리!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래인보우 아트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색동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래인보우 비전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래인보우 아트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래인보우 비전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래인보우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래인보우비전홀)
수요기도회 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래인보우아트홀)	새가족모임(4주간)	주일 오전 930(새가족실)
수요기도회 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래인보우아트홀)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래인보우아트홀)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오시는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 벽 기 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 드리실 수 있음
주일 5부 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 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 서 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등급인원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등급인원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캄보디아 시엠립에 국제학교 세우다

국제학교현판식

정기환 목사와 일행(김남수 목사, 윤순희 목사)은 2월 6일(월)~8(수)일간 여정 중, 8일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국제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일명 웨스트민스터국제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ESL과 검정고시 및 현지학교 과정을 진행한다.

전원중앙교회에서 캄보디아에 파송한 이원철선교사가 현지 교장직을 맡고 컬리큘럼을 이수하게 하며, 해외의 다른 학교와도 연계하여 진학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전체적인 조정은 이사장 정기환 목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사진들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대안학교에 보낼 학생들은 그곳으로 보내면 저렴한 비용으로 ESL과 다른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 비용은 한 달 숙식 및 모든 교육비용을 포함하여 미화 500달러이다.

또한 화요일에는 시엠립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교회를 신축한 품 꾸와우교회의 헌당식도 함께 가졌다. 캄보디아의 시엠립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광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 한주에 50편의 비행기가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에 교육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문을 익히게 하는 동기부여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본다.

품꾸와우 교회헌당

따분다니엘 빈민촌에 교회를 건축 도움의 손길을

일사각오로 필리핀 따분빈민촌에 들어간 이경철 선교사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 중

필리핀 팜팡가 지역 피나투보 화산폭발로 인해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강가의 따분 블록 7지역 빈민촌에 이경철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한지 벌써 8년이 되었다. 처음 그곳을 방문해 윗동네에서 벽돌집이라곤 찾아 볼 수도 없고 그저 허름하게 대나무와 헌 양철조각으로 다닥다닥 빈민촌이 형성된 아랫동네를 바라보았을 때 왜 이런 곳에 교회가 없을까 의아해 하며 이왕이면 교회가 없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보람이 있겠다 싶어 빈민촌 한 복판에 뛰어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물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곳에 왜 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고 복음전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뒤 3주 후에 나는 허락도 없이 남의 동네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다며 총기를 소지한 4명의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선교물품도 빼앗기고 인질로 붙잡혔다. 윗동네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같이 데리고 갔던 열 댓 명의 동네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이 다다르자 내가 체포되는 상황에 도와 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다들 하나같이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렸다.

돈도 없이 선교지에 왔으니 경찰도 손을 못 대는 위험한 곳이라 인질로 잡혀가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죽으나 끌려가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것이 어떤 물건인데 당신들이 가로채며 복음을 막느냐며 우리는 지금 철수할 터이니 당신들이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누어 주라며 그들에게 도리어 호통을 쳤다.

조금 전까지 수세에 몰려 쥐죽은 듯 있다가 갑자기 내가 불호령을 내치면서 철수한다는 말에 등 돌리고 고개를 숙였던 윗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철수 하랜다!' 합창을 하고 고개를 쳐드는 바람에 인질범들이 깜짝 놀라 그럼 자기들이 나눠 주겠노라며 수그러드는 바람에 윗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교회건물이 꼭 필요한 곳인데 지을 여건은 안 되고 계속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려 왔기에 그런대로 참고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이단이 난무하며 곳곳에 세력을 확장하는 터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빈민촌 한가운데 빈민가를 매입해서 교회를 짓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 기도하며 자리를 물색하게 되었고 마침내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빈민촌 아이들이 벽돌을 한 장씩 어떤 아이는 두 장씩 등에 매고 운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눈물겹다. 벽돌이 한줄 한 줄 쌓여 갈 때 피땀 어린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소망이 쌓여 간다.

땡볕에 공사를 하고 때론 비를 맞아 가면서도 공사를 진행한다. 비를 맞으며 건축자재를 운반 할 때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햇볕이 강하면 구름으로 가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건축을 진행 하였다.

교회 건축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월세의 압박과 빈민촌에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는 각오로 오늘은 사택을 양겔레스 칼멘빌 빌리지 에서 따분빈민촌 교회로 옮기는데 지프니에 짐을 많이 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다가 머플러가 떨어져 나가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밀려서 사고가 날 뻔하였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교회 건축을 위해 물질의 문이 열려지게 해 달라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 건축비도 없이 믿음으로 내어 딛고 또 일을 저지른 것이다.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재와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럴 때 마다 뙤약볕에도 아랑곳 않고 벽돌 두 장을 등짝에 걸머쥐며 너무 힘겨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빈민촌 아이들을 생각하며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곤 한다.

하나님 저는 왜 왜 이다지도 힘들게만 해야 하는 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쓰러지면 저 어린 영혼들은 어찌할꼬! 마약과 술로 지새는 빈민촌의 영혼들은, 아파서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저들을 누가 가서 기도해 줄꼬! 고민하며 마음 아파 주야로 눈물로 지새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사택까지 옮길 필요가 있느냐, 너무 위험한 곳이고 밤이면 골목 거리에 전기도 켜 있지 않은 어두컴컴한 곳, 마약과 술로 아픔을 달래는 저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곳, 지금도 이웃 집 사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옆집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며 이경철 선교사를 만류하며 걱정을 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라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론 밥 먹는 것도 잊어 가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따분다니엘 빈민촌 교회를 지어 가고 있다. 이경철선교사는 소외된 저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 어린 시절 '기브 미 초콜릿' 을 외치며 손을 벌려야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를 위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도록 고국의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빈민촌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있다. 마약과 술이 난무한 따분빈민촌에 8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건물이 없어 농구장 뙤약볕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번에 30평 건물을 우선 계약금만 걸고 믿음으로 교회건축을 시작을 했다. 위험지역이지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택도 오늘 이사를 하는 중이라며 JTNTV방송과 지저스타임즈에 2월 19일 주일아침 소식을 전해왔다.

자재, 인건비와 잔금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고 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피땀 어린 선교후원의 손길이 담긴 빈민촌의 희망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따분다니엘 교회가 세워져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건축을 하고 있다. 한편 이경철 선교사는 JTNTV방송(www.jtntv.kr)와 지저스타임즈 필리핀 지사장이며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선교후원계좌 606-20-921033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이경철

건축하면서 복음전하는 이경철 선교사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2012년 신제품!!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FORCJEC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장당 잉크비 20원(20%차트)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최대적재 용량 2,500매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大 사이즈, 주보까지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장당 20원(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 인쇄
다양한 출력물제작

★ High Speed
150매/분(9천 매/시간)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장착
동시 3도 인쇄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풀 칼라 구현 효과

★Flexibility
최대291X412㎜
(카드, 봉투, 엽서)
다양한 처리능력

3 color 3 color

고생산성 (High Speed)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③ 칼라드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 (High Quality)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 용지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A3 20매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컬러 복사기 / 컬러 프린터 / 스캐너 / 흑백 복사기 / 흑백 프린터 / 팩스(옵션) / 양면(옵션) / 주보 인쇄기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2011년 신제품출시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제판기 인쇄기·복사기 프린터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효율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컬러인쇄!!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1,595,000 ₩890,000

중철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중철제본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H·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Ltd.
☎ 1588-0691
www.jubo11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장. 032)551-4114

설동욱 목사, 제16회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 가져

총 530여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진한 감동의 대축제로 만들어져

'새 언약의 세대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오직 목회자자녀들만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축제 "2012년 제16회 전국 목회자자녀 세미나"가 참석한 530여명의 목회자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진한 감동과 아쉬운 여운을 남기며 진행됐다.

"2012년 제16회 전국 목회자 자녀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주최하여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후원하여 지난 2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전국의 목회자자녀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택 오산성은동산에서 진행된 행사로 이번 세미나에는 약 530여명의 목회자자녀들이 함께 동참하여 회복의 눈물과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현장으로 기록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문강원 목사(원천교회), 다니엘김 선교사(USA파송선교사),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김동환 목사(다니엘학습법 저자), 이선일 원장(울산소망정형외과원장), 최인혁 집사(Vision Studio 대표), 소리엘(소리엘미니스트리 아트엘 뮤직 대표), 이성혜 자매((2011년 미스코리아 진),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등 한국 최고의 강사와 찬양사역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들의 역량을 다한 열정적인 강의와 찬양으로 목회자자녀들에게 새 언약의 세대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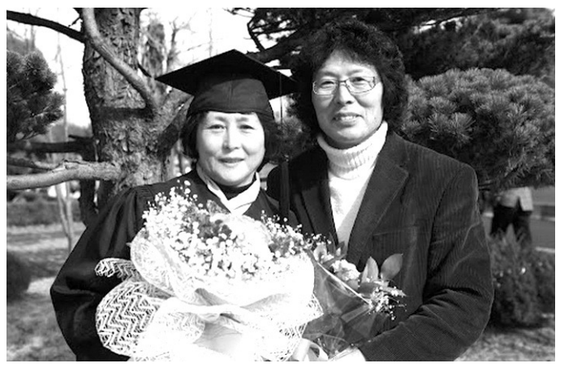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제16회 세미나에 참석한 선재중앙교회(손덕수 목사)의 손예은 PK는 "세미나 기간 동안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용서받았다며 감사를 전하고, 옥산교회(송수목 목사)의 송화평 PK는 "세미나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특히 다니엘김 선교사님과 설동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다.

훨로쉽교회(윤민수 목사)의 윤시온 PK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많이 흔들려 영적으로 너무나 목말라있던 상태여서 이번 세미나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정말 기대이상 이었습니다. 모든 강사 분들이 저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셨는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동생과 함께 매일 나가려고 다짐했습니다."라고 했으며 석모교회(박은배 목사)의 박재광 PK는 "주님이 저의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울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그날은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샘이 작은지 코에서도 눈물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 감동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라고 했으며 익명의 PK는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올 한 해 동안 부모님께 상처준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눈물이 계속 흘러 생각나는 대로 회개했지만 아직도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이번 세미나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제16회 전국 목회자자녀 세미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 만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위로받고 위로해주며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세미나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여름에 진행될 '제17회 전국 목회자자녀 세미나(8/15~17)'가 기대가 됩니다. 목회자사모신문이 진행하는 목회자자녀 세미나는 겨울에는 중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에는 20세 이상된 목회자자녀들로만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세미나에 자녀분들을 보내어주신 목회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관심으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따뜻한 부모사랑 나눔에

늦깎이 대학생이 된 권용현씨 부부


전북사회복지 졸업

"저희는 여생을 농촌이나 시골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에 작은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10일 오전 11시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일장신대(총장 정장복)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학위와 함께 전북사회복지협회 장상을 받은 권용현(57·사회복지학부)씨가 밝힌 졸업 소감이다. 그는 오랜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사회복지에 헌신하기 위해 뒤늦게 학교를 다닌 만학도다.

권씨 가족은 24년 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건축현장 노동, 세탁소 운영, 우체국 근무 등 온갖 고된 일을 했다. 차츰 생활이 안정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부부는 언제부턴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고국의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살자"는 결론을 내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느낀 강렬한 사명이었다. 부부는 하나님앞에 함께 서원했다. 두 딸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 받은 사명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노라고. 그리고 때가 되자 부부는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5년 전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권씨는 2006년 한일장신대에 입학했다. 미국에 있을 때 칼빈 연구를 위해 미국에 머무르던 한일장신대 배경식(신학부) 교수와의 인연이 계기였다. 배 교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부부는 이에 따랐다.

권씨는 한일장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기독교상담학을, 부인 유진경(60)씨는 전주비전대에서 아동복지학을 전공했다. 유씨는 하루 전인 9일 졸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전북지역대학 졸업예정자 중 우수 학생에게 전북사회복지협회가 수여하는 '모범 예비사회복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부는 재학 중 전주 예랑유치원에서 유아체육교사로 생태교육과 체육, 영어를 4년간 가르쳤다. 또 자전거동아리 '크로스 바이크(Cross Bike)' 회원으로 자전거 이용홍보와 자전거 무상수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여름방학때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교포 청년들의 봉사단체인 '예스대디(Yes Dady)' 회원들과 함께 한국 보육원에서 2주간 영어캠프를 열며 봉사활동도 벌였다.

졸업 후 그룹홈을 운영하기 위해 완주군 구이면에 새 보금자리도 마련했다."이민가기 전까지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곳에 5년 동안 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이 많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농촌교회 유년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이곳이 바로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부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려고 시청과 군청을 찾아다니며 절차와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당장 시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2~3명의 위탁양육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권씨는"우리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교수의 강해설교 1

김수정 교수

70인역 성경분류(구약39권)

구 분		권수	성 경		
구약성경	①율법서 (모세오경)	5권	1.창세기 2.출애굽기 3.레위기 4.민수기 5.신명기	創世記 出埃及記 利未記 民數記 申命記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②역사서	12권	6.여호수아 7.사사기 8.룻기 9.사무엘상 10.사무엘하 11.열왕기상 12.열왕기하 13.역대상 14.역대하 15.에스라 16.느헤미야 17.에스더	約書亞記 士師記 路得記 撒母耳記上 撒母耳記下 列王記上, 列王記下 歷代志上 歷代志下	Joshua Judges Ruth 1 Samuel 2 Samuel 1 Kings 2 Kings 1 Chronicles 2Chronicles Ezra Nehemish Esther
	③시가서 (문학서)	5권	18.욥기 19.시편 20.잠언 21.전도서 22.아가서	約伯記 詩篇 箴言 傳道書 雅歌	Job Psalms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④예언서	17권			
	대선지서	5권	23.이사야 24.예레미야 25.예레미야/애가 26.에스겔 27.다니엘	那利米書 那利米哀書 以西結書 但以理書	Isaish Jeremish Lamentation Ezekiel Daniel
	소선지서	12권	28.호세아 29.요엘 30.아모스 31.오바다 32.요나 33.미가 34.나훔, 35.하박국 36.스바냐 37.학개 38.스가랴 39.말라기		

히브리서 성경분류 (구약 24권)

토라(5권) 율법서	네비임(8권) 선지서			케투빔(11권) 성문서		
원리	원리를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적용		
타나크	선 선지서 (4권)	후 선지서		지혜서 시서 (詩書) (3권)	오축 (五軸)(5권)	그 외의 책 역사서 (歷史書)(3권)
		대선지서 (3권)	소선지서 (1권)			
1.처음에 2.이름들 3.그가 부르셨다 4.광야에서 5.말씀들	6.예호슈아 7.지도자들 8.쉬무엘상 쉬무엘하 9.왕들상 왕들하	10.예샤야 11.이르 메야 12.예헤 즈켈	13.호 쉐 아 요 엘 아 모 스 오 받 야 요 나 미 카 나 훔 하 박 쿡 쯔 판 야 학 가 이 즈카르야 말 라 키	14.찬양들 15.이 욥 16.잠 언	17.룻 18.노래들 중의 노래 19.전도자 20.에카 21.에스 테르	22.다 니 엘 23.에 즈 라 느 헴 야 24.왕조 실록상 왕조 실록하

* 히브리즘 성경 분류- 구약을 3부분으로 분류한다(24권).

헬레니즘 성경 분류- 구약을 4부분으로 분류한다(39권).

기 독 교 성경 분류- 구약을 3부분으로 분류한다(43권).

(시편은 5권으로 편집)

"그러면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이니라."

(롬 3:1, 2)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다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성경기록관'(서기관, Scribe)이라고 불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히 성경기록관들이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을 통해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S. Miller)가 지은「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이라는 책을 보면, 유다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1)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다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성경기록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온 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기록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며, 따라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 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왔으며,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8)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이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다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다음호에 계속

논란 '79층 십자가 빌딩' 상업적 목적 조감도 공개

전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무관한, 철저히 상업적 의도 건물

최근 지방매체 A와 기독교이단매체 S에 의해 세계 최초로 79층 십자가(조감도 모양) 빌딩(사진) 건축 계획이 보도됐다.

그러자 안티들에 의한 비난은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는 이 건물 건축 추진의 당사자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엄신형 목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거셌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빌딩은 엄신형 목사는 물론 기독교계와는 상관없는, 단지 '십자가 모양 빌딩'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하려는 상업적 목적의 건물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목걸이도 귀걸이도 되는데 건물은 왜 안 되나"

앞서 언급한 두 매체는 1월 9일, 25일 그리고 2월 6일 3회에 걸쳐서 '79층 십자가(모양) 빌딩' 건축 계획 발표, 투시도 공개, 조감도 공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두 매체는 건축을 추진 중인 L회장의 말을 인용 엄신형 목사가 참여하고 있음을 전했다.

L회장에 따르면 엄신형 목사는 사업의 취지가 사회 공헌에 앞장설뿐 아니라 국가 관광 자원에 기여하고, 기독교 복음의 천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고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판단, 흔쾌히 수락했다.

엄 목사는 또 전 기독교인을 대표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본지가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엄신형 목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L회장과 통화해 본 결과 이번 건축은 엄신형 목사는 물론 기독교계와는 상관없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79층 십자가 탑 조감도

L회장은 "엄신형 목사는 단지 기도로 후원하는 관계일 뿐, 건축 추진과 상관없다"면서 "십자가 빌딩은 세계 최초로 지어지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이 기대돼 상당한 홍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돼 십자가 모양 빌딩을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적인 건축에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모양을 적용할 때 기독교계나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걸이도 귀걸이도 만들어 여기저기 차고 다니는 판국에 건물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으려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라며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 이슈화하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언론이 L회장의 말로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곳 건물에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서점, 기독교 과학영상 상영실, 국제 기독교 세미나실, 기독교 성서 역사관, 십자가 빌딩 교회, 세계부흥강사 회관, 세계 최대 기독교 도서관, 청소년 기독교 수련관, 기독교 선교사 지도자 대학, 복음성가 공연실, 위대한 목사 기념관, 세계 기독교 지도자 정기총회실, 십자가 조각전시관, 기독교 언론사 회관, 성경 말씀 66권 벽화 기록실, 작은 교회 사랑방, 기독교상품 백화점, 신학대학, 해외 기독교 한상 회의실, 기독교 위성방송국, 기독교인 예식장, 일반 백화점, 영화관, 복음 찬양 공연실, 세계기독교 지도자회의실, 호텔, 연회장, 기독교 병원,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과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복음선교회 2012 선교 위한 단합대회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

국제복음선교회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는 2012 세계선교를 위한 단합대회 및 감사예배를 드린 후 월례회를 개최했다.

계승창 목사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어 고재만 목사가 기도를, 김종원 목사가 특송을, 송요엘 목사는 신명기 30:11~14절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했다.

이날 헌금에 빛과소금교회 교역자 일동이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우수기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선교현장을 관람했으며,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월례회와 척사대회를 갖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날 김동훈 목사 진행으로 각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

국제복음선교회는 2012년 현재 설립된 지 11년째가 되며,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본지 상임이사), 사무총장 송요엘 목사 외에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 선교회의 사업계획으로는 매월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회를 가지며, 목회정보,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를 통해 교회성장과 선교운동, 현장전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매년 5월과 11월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2박3일 수련회를 갖는 등 영적충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국제복음선교회(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선교사 후원은 매월지원하고 있으며, 선교보고, 현지 방문 등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선교 단체이다.

한편 본 선교회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중국, 태국, 캄보디아 선교에 회원으로 동참할 사역자(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평신도)는 H.P 010-3228-352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는다고 했다.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 오정현 목사 설교

3월8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려 이 대통령 참석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가 3월 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오전 7시 이명박 대통령 등 정, 교계 인사 약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가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 장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상황과 보고하고,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교단 안배, 역대 설교자 제외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를 설교자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민족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창22:14)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국민화합, 경제번영,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등 식전행사, 기도회, 조찬 및 친교로 총 3부로 진행한다. 1부는 최윤영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사랑의교회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오미선 씨가 참여하는 음악회로 열린다.

노승숙 장로의 사회로 2부 기도회는 황우여 의원의 개회사, 이경재 의원(새누리당)의 개회기도, 이배용 위원장(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성경봉독,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설교, 우제창 의원(민주통합당) 등이 특별기도를 인도하고 합심기도와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의 축도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우여 장로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가"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기쁨을 국민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여러 나라가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올해를 시작하며 대통령을 모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노승숙 장로는 "3월에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기도회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지난해부터 각 교회들을 돌며 헌신예배를 갖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며"단회적 행사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 기도회가 끝난 후 서울 및 각 지방의 거점 교회들을 돌며 기도하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5월부터 2개월 단위로 부산, 광주, 대구 등을 순회하는 일정이 마련돼 있다.

장헌일 사무총장은 보고에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후원하여 창립된 해외 기도회로 일본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 페루에 이어 2012년에는 카메룬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국가조찬기도회 사역을 확대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도록 국가조찬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 하루 전 7일에 서울 은평교회에서 외국인 환영만찬과 세계평화음악회를 갖고, 3월 9일에는 국회에서 국제친선기도회를 함께 진행한다. 기도회에는 미국, 이스라엘, 카메룬, 일본, 루마니아 등 전 세계 15개국의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이단집단 개입 우려

모 이단집단, 조직위원회에"자원봉사자 1만4천명 동원"제안

오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아시 45개국 OCA 선수 및 임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에 모 이단집단이 자원봉사자 동원 명분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교회 대표적인 이단집단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모 집단은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자원봉사자 1만 4천명을 동원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원봉사단체를 '기독청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겠다고 해 정통 기독교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단집단은 인천을 집중적인 포교지역으로 삼고 대대적인 교회 침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독청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리를 교육할 경우 정통 교회 신자들이 이들의 포교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뉴스파워 관계자는 지난 20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공식문서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꺼려했다.

이단집단은 기성교회 신자들에게 성경공부를 하자고 접근하거나, 기성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자를 빼내가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기성교회인 것처럼 위장하고, 홍보하여 포교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기독교 언론까지 이들의 활동을 기성교회인 것처럼 착각해 보도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9월에 열린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모 이단집단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조직위원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모 기독교 언론이 정통교단의 활동으로 착각해 보도해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이단집단은 또 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태 때 교주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자료화해서 섬김과 봉사의 상징적인 단체로 홍보해 정치권까지 홍보자료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4년 총선과 2007년 대선에서도 이단집단이 선거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조직위원회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 경기 관람 입장권 구입을 요청했으나, 대구지역들의 호응의 적었다. 반면에 이단집단은 입장권 구입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스포츠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단집단은 배려해 주고, 기독교계 활동은 홀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인천지역 교회들이 인천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자원봉사활동, 입장권 구입, 홈스테이 제공 등을 위해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단집단의 활동에 한국 교회의 경계가 다시한번 요청된다.

뉴스파워제공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양화진 헌화

선교사의 발자취 계승 한국교회 바로 세워나가길 다짐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20일(월) 오전 11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선교사들이 뿌린 희생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며 "비록 한기총이 아픔을 겪었으나 이를 잘 봉합해서 한국교회가 바라는 연합기관으로 거듭나고, 10만 교회와 2천만 성도의 원년이 되는 축복이 올 한 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1(목) 오후	삼일절 행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대회장 한정섭 목사) ☎ 010-3927-0691
1(목)~4(주)	서울 목장교회(한상길 목사) ☎(02)2605-4057
2(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3(토)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4(주일) 오후	대전 세계로교회(김성기 목사) ☎(042)541-0675
5(월) 오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
5(월)~ 7(수)	인천 사랑발전도교회(권태일 목사) ☎(032)502-7770
8(목) 오전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
8(목)~10(토)	대전 월평동산교회(조운일 목사) ☎(042)536-6611
12(월) 오전	청주금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 ☎(043)269-5211
12(월)~15(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16(금)~17(토)	일본 OSAKA Mikuni Festival(대회장 박승희 목사)
18(주일) 오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18(주)~21(수)	부천평안교회(원영대 목사) ☎(032)346-3669
19(월) 오전	서울 벧엘교회(박태남 목사) ☎(02)923-6481
22(목) 저녁	화성 섬김의집교회(박중현 목사) ☎(031)227-5244
23(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5(주일) 오후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 ☎(02)435-0541
26(월) 오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조희연 목사) ☎(031)947-0091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26(월) 오후	서울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02)763-7244
26(월)~30(금)	부산 감림산기도원(원장 이옥란 목사) ☎(055)375-0831 제169차 해외성회(169th Overseas Assembly)
31(토) 오후	미국(U.S.A) LA행사(이오연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기환 목사(D.Ed., T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회 총재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t Bochum
임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